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제118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가을 사찰순례법회 10월 21일(수) 오전 7시

금강선원에서는 오는 10월 21일(수) 설악산 백담사로 사찰순례법회를 갑니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 위치한 백담사(百潭寺)는 647년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미타상 3위를 조성, 봉안하여 절을 짓고 이름을 한계사라고 한 절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화재로 절이 소실되어 중건되었고 절 이름과 위치도 달라져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금의 백담사는 1919년에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산령각, 화엄실, 법화실, 일주문 외에 3층 석탑 1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옛 문화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설악산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흘러들어 모인다는 백담계곡에 자리 잡은 백담사에는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오세암과 봉정암 같은 부속 암자가 있으며, 법당 외에도 일제 침략기에 굳은 지조와 대쪽 같은 기개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로, 남을 노래한 시인으로 그리고 불교개혁의 대선사로 활동한 만해선사의 문학사상과 불교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각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백담사 순례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출발일시 : 10월 21일(수) 오전 07:00
- ▶ 출발장소 : 경기여고 맞은편
- ▶ 동 참 비 : 5만원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밤 7:30~10:30
▶ 장소 : 대법당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법회 봉행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보살사상 근본도량 금강선원은 오는 11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개관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일생 동안 역경 불사와 후학양성에 헌신하여 현대 불교의 교육과 교학,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탄허 대종사를 기리고, 스님의 '인재 양성'이라는 유지를 계승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강남구 자곡동에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은 대강백인 탄허스님의 생애와 정신,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는 유물·유묵·역서 등을 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과 문화행사, 수행과 법회 그리고 전문 학인의 양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

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교육 문화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개인의 성숙과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뜻 깊은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개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오는 10월 17일(토)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금강경강송대회를 통해 경전강송

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수

행수기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금강경강송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일정
- ▶ 08:00~08:30 접수 및 입실완료
 - ▶ 08:30~09:00 순당의례
 - ▶ 09:00~09:30 개회식
 - ▶ 09:30~10:40 개인부문-사경(외워쓰기)
 - ▶ 11:00~12:30 개인부문-암송
 - ▶ 13:00~15:00 단체부문-합송
 - ▶ 15:20~15:50 개인부문 결선
 - ▶ 16:00~16:30 체험수기 발표
 - ▶ 16:30~17:10 시상식 및 폐회식

수륙대재 봉행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와 조상 그리고 유주무주 고향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대재를 봉행합니다.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5년 11월 21일(토) 오후 1시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 ▶ 기도동참금 10만원, 설판 100만원

제27기 성인 기초참선반 개강



참선자세를 직접 가르쳐주시는 혜거 큰스님

지난 9월 9일(수) 오후 7시 대법당에서 2015년 가을학기 성인기초참선과정의 시작되었습니다. 개강 첫날, 많은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혜

거 큰스님께서서는 법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눈을 바꾸어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눈으로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참선을 하는 마음가짐과 참선의 단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지구력과 집중력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선원 성인기초참선반은 1년에 두 번 개설되는 기초참선과정으로 불학기는 오후 3시, 가을학기는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 수료식



혜거 큰스님으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수료생

지난 9월 6일(일)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청소년 기초참선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진행된 8주간의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미래의 꿈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일으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 자신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길을 떠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상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및 시상식이 있었고 이어진 법문에서 혜거 큰스님께서서는 “이 세상은 아는 사람의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집중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력이 습관화 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중력과 지구력 성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금강선원의 청소년 참선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지구력, 자기조절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 발견과 꿈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될 기초참선반에 보다 많은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명상에 제목을 붙인다면?’ 공모전



지난 9월 6일(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내 명상에 제목을 붙인다면’이란 주제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 수료식을 맞이하여 마련한 작은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참나를 찾는 14번의 나 비우기’로 이다빈(서울국제고2) 학생의 제목이 선정되었습니다.

박물관 단신



박물관 특별교실 1기 ‘스스로 빛나는 별’

9월 5일, 12일, 19일 수서 경찰서의 요청으로 특별교실 ‘스스로 빛나는 별’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장님의 좋은 말씀과 운동, 난타 등 각종 분임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10월3일 특별교실을 마치게 됩니다.

2015 박물관·미술관 교육아카데미 전문인력 실무 교육 참석

박물관 학예사가 (사)한국 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 박물관·미술관 교육아카데미 전문인력 실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8일~9일 양평 현대 종합연수원에서 진행 되었으며, 유물관리 및 보존 등 실무적인 교육내용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그리움의 편린’

2015 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그리움의 편린’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탄허기념박물관이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탄허대종사의 입적32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유품등 44점을 모아 박물관 전시실인 방산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삭도, 약저울등 민속품에 가까운 귀한 스님의 유품과 특히, 설치 작품인 ‘그리움의 방’은 특별하게 꾸며진 공간으로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일)까지 전시하는 기획전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금강선원 기도 안내

- 사시 예불
 - 매일 아침 9시 20분 ~ 10시 30분 기도법당 (모든 축원은 사시 예불 시간에 올립니다.)
- 기도 동참
 - 1. 상시 기도
 - 일년 기도 - 동참비 1인 월 2만원
 - 인등 기도 - 동참비 2인 1등 월 1만원

- 2. 특별 기도 : 각자의 발원을 담은 기도
 - 생일, 건강, 학업, 결혼, 취업, 사업,
 -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 매월 초하루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신년3일기도, 신년천도재, 백일기도 백중기도 등

탄허기념박물관 특별기획전 그리움의 편린(片鱗)

전시기간 : 2015년 8월28일(금)~10월31일(토)

주관: 탄허기념박물관 TAEHEO MEMORIAL MUSEUM

후원: 서울특별시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⑥



어떤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날의 아쉬움을 극복하려고 힘써 노력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 미래의 시작이고 내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할 일을 다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매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어제가 부럽지 않도록 공부해서 매일 승진陞進합니다.

然이나 迷頭捨父야야 悟有易難할새 故로 仙苑覺場에 教興頓漸하사

그러나 혼미한 사람은 아버지를 버린 터라 깨달음에 쉽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므로 선원각장의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있다.

연然이나 미두사부迷頭捨父야야. 미두는 어리석은 자이고 사부는 부모를 버린 자로 모두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유이난悟有易難할새. 깨달음에 쉽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집과 부모를 떠

나서도 빨리 돌아가는 자가 있고 늦게 오는 자가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집에 빨리 오는데 늦게 깨달거나 심지어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故로 선원각장仙苑覺場에. 그러므로 선원각장에서. 선원각장은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던 장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사찰이 있던 것이 아니고 동산이나 언덕에 깃발을 꽂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탄하여 기원정사가 처음으로 지어지게 되지요.

교흥돈점教興頓漸하사. 부처님께서 돈교와 점교를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서는 돈교와 점교를 따로 구분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을 정리하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깨달음에 쉽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설하시는 곳에서 돈교와 점교로 가르치셨다.

漸은 設五時之異하사 空有를 迭彰하고 頓은 無二諦之殊하사 幽靈이 絕待하시니 點교는 오시의 차이를 두어 공과 유가 번갈아 빛나고 돈교는 이제의 다름이 없어 유령에 상대가 끊겼다.

점漸은 설오시지이設五時之異하사. 점은 다섯 단계를 달리 세우시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방안을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인천교 교리인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5계 10선으로 인간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둘째는 계율을 지키면서 자기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소승불교입니다. 이 소승

불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승불교로 넘어가는데, 대승은 계율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자비심으로 세상에 이익을 베푸는 핵심 경전이 금강경이예요. 이런 과정에서 점교가 이루어지고, 네 번째는 소승과 대승을 가르치고 나니까 둘이 서로 부딪쳐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 가르친 경전이 바로 원각경이예요. 그래서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돈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대승과 소승을 초월해서 하나가 됩니다. 돈교의 마지막 단계가 원교예요. 원교경전은 화엄경 법화경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은 다섯 단계로 각기 다른 방안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공유空有를 질창迭彰하고. 공과 유를 번갈아 밝히시고, 공은 무(無)로 바꾸시면 쉽고, 유는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와 유를 번갈아가면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은 공과 무의 이치를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은 유이고 공은 무입니다.

돈頓은 무이제지수無二諸之殊하사. 돈은 이제의 다름이 없다. 즉 돈교와 점교가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돈교와 점교가 다른 수행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다섯 단계의 수행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돈도 점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인천교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 어찌하면 좋어요. 얼른 상급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유령幽靈이 절대絶待하시니. 깊은 마음으로 상대를 끊으셨으니. 여기 유령은 귀신이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끊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초월했다는 의미지요. 이따금 중도라는 말도 쓰는데, 초월이 되어야 중도를 취할 수 있고, 이 중도의 의미는 내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타일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점교는 다섯 단계를 세우시어 공과 유를 번갈아 드러내 보이시고, 돈교는 점과 돈이 다름이 없어 깊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今此經者는 頓之類歟인지 故로 如來入寂光土하사 凡聖一源이오 지금이 경은 돈교의 유이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적광토에 들어감에 범성이 하나의 근원이요

금차경자今此經者는 돈지유여頓之類歟인지. 이 원각경은 돈교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故로 여래입적광토如來入寂光土하사.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적광토에 들어가셔서. 이 적광토는 범부와 성자가 살아가는 사토四土 중에서, 청정지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 그 자체의 세계인데, 즉 법신불의 세계를 말합니다.

범성일원 凡聖一源이오. 범부와 성인의 근원이 하나이다. 귀족과 천민이 온 자리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은 하나이나 자신이 부지런하고 게으름에 따라서 누구는 범부로 살고 누구는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글을 종합하면, 이 경은 돈교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부처님께서서는 적광토, 즉 법신불의 세계에 들어가시니 범부와 성인의 근원이 하나이더라.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불교역경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큰 뜻을 널리 펼치고자 시작되는 성스러운 대방광불화엄경 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큰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 대방광불화엄경 經 제목 (각 1자) : 1천만원
- ❖ 글자 100자 (10구좌) : 1천만원
- ❖ 글자 10자 (1구좌) : 108만원

- ❖ 동참계좌 : 신한은행 100-029-930686 금강선원
- ❖ 문 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445-8484)

呑虚大宗師遺墨選



1280 x 300mm

天人焉有兩般義 천인언유양반의
道不虛行只在人 도불허행지재인

하늘과 사람이 어찌 두 가지의 뜻이라
도는 공허하게 행한 게 아니라 단 사람에게 있네

<소강절 - 관역 4>

지역사회에 헌신적 봉사와 교육으로
거듭나는 현대 박물관

박물관 단상

고대 이집트의 뮤제이온(museion)에서 유래한 박물관은 그리스 헬레니즘과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고 근대에 이르러 대중과의 호흡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만 해도 뮤지엄의 개념은 '수집품을 수납하는 시설' 정도에 그쳤으나 현대에 이르러 '일반에의 공개'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인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신흥 도시들이 뮤지엄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인 긍지를 높이고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함에 따라 뮤지엄은 하나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변화된 이러한 개념은 1974년에 열린 국제 뮤지엄 협의회(ICOM)2 총회에서 뮤지엄의 개념과 역할을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적인 상설기관'이라는 규정을 통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수장고'라는 과거의 오랜 정의에서 벗어난 뮤지엄이 오늘날 가져야 하는 역할을 제시해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박물관은 고유의 수장고의 기능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

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이제 개관 5년차를 맞아 박물관다운 면모를 서서히 갖추고, 특히나 관장님의 뜻에 따른 교육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민 등 보다 더 광범위한 문화 향유 계층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하여 박물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함과 동시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박물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 최미금 학예사

종잣돈

지금 우리 선원에서는 화엄경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불사!

높고 높은 부처님 법을 불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 불사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설판 하나면 제법 큰 금액인데 그래도 시작하면 끝은 내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다 종잣돈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새해에 스님께 세배하고 받은 우리 식구 세뱃돈, 어느 날 33기 불대회장님이 지갑에 넣어 준 5만원, 작년 금강경 강송

대회 입선으로 받은 돈 등등 종잣돈의 쓰임을 들은 적이 있어 모아 두었습니다. 거기다 우리네 식구 잔돈 모은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두둑합니다. 혼자 모은 돈이 아니니 의미를 또 부여해봅니다.

그 돈을 어디에 넣어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걸까? 땅 살 때 쓸까? 애들 공부하는 학비에 넣어 쓸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는데. 이것도 같등입니다. 그래도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이 모든 걸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사를 이 돈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처님 말씀 새기는 일이 최고요, 그 속에 내 종잣돈을 쓴

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자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이 마음이 평온을 가져왔으니 종잣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 제 맘 다 아시지요? 부처님 법이 많은 사람 가슴 속에 꽃처럼 피어나고 이 나라, 불자들, 저희 가족, 제 바람 모두 성취되길 바랍니다.

종잣돈 얼마가 이리도 부처님 법을 들먹이는 일이 될 줄 몰랐지만 마음만은 천만금 만큼이나 큰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는 화엄경 불사를 시작하고 저의 원이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글 / 선지행 (제36기 선하불교대 회장)

박물관 소식

- 2015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 교육기간 : 3월~10월
 -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00~14:20/오후14:00~16:20
 -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 9월 05일, 12, 19 일 수서경찰서 청소년 참선반 활동
 - 9월 07일~08일 : 참선반
 - 9월 22일, 24일 중앙중학교, 23일 화성 남양중학교 길위의 인문학 교육
 - 9월30일 : 문화가 있는날 작은 음악회 오후5시

-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혹시 알아, 오늘이라도 행운이 찾아올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산티아고는 멕시코 만류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살아가는 늙은 어부입니다. 가난한 산티아고에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 찾아온 듯합니다. 매일 빈손이었는데 드디어 낚시줄에 소식이 옵니다. 낚시 바늘을 삼킨 녀석은 조각배보다 더 커서, 700kg은 족히 나갈 것 같은 멋진 청새치였습니다. 기운 센 녀석은 물 위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낚시줄을 끌고는 더 먼 바다로 헤엄쳐나갑니다.

그때부터 사흘 낮 사흘 밤에 걸친 사투가 벌어집니다. 어부의 숙명이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라면,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낚시 바늘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져야만 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결합니다.

사투 끝에 노인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룬 것이죠.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드디어 마물로 자랑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운도 잠깐,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어들이 이빨을 번뜩이며 몰려드는 것을 노인은 바라봅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작살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허영게 뼈로 남은 청새치를 달고 산티아고의 배가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빈손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의 『노인과 바다』(1952) 줄거리입니다.

산티아고는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운이 트일지? 매일 매일이 새로운 날인걸.” 하면서 오늘도 낚은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꾸던 목표에 도달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밀려와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이 소설에서 노인과 청새치가 삼일 간 사투를 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크고 멋진 물고기인 청새치의 당당한 생명력, 삶을 향한 투지, 자유를 갈구하는 용기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리고 청새치와 대결하는 순간 노인 역시 함께 당당해지고 함께 자유로워지고 함께 용감해집니다. 누가 이

겼는가, 무엇을 잡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잡으려 하고 살아나려하는, 그 순간의 열렬한 행위 자체가 빛납니다.

결국 청새치는 노인의 작살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상어에게 청새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흘 밤 사흘 낮을 배를 끌고나가며 살고자했던 청새치의 투지를 떠올려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수면 위로 높이 솟아올라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청새치의 모습은 잊히지 않습니다.

청새치는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물고기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이끌고 있는 것인지”, 배에다 청새치를 묶고 들어서 나란히 가면서 노인은 말합니다. 물고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노인에게 청새치를 잡는 일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상어떼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홀로 결의하는 노인은 청새치의 마지막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는 말은 청새치와 노인은 물론이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상황은 계속 달라집니다. 힘들게 얻은 결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이런 가혹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삶이 부서져 내리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래도 자신을 패배자라고 함부로 자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묵묵하게 삶의 가혹한 얼굴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뼉 더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허영게 드러난 청새치의 뼈와 여윈 노인의 얼굴에 깊이 팬 주름에서는 비슷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둘 다 파멸과 패배의 시간을 견뎌낸 상흔입니다. 이 상처에서 허무가 아니라, 생의 빛나는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나와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글 / 한수영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천년 세월을 가는 한지



연그림 740 x 520mm

비 뿌린 한 여름 날씨 따라 몸과 마음이 물먹은 종이처럼 눅눅하고 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부응하는 휴가도 잊어버리고 지내다 광복절 연휴 기분전환을 위해 연꽃으로 만발했을 양평 세미원(洗美苑)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觀水洗心 觀花美心)”는 의미를 살려 마음을 추슬러 몸을 가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도로를 꼭 매운 끝없는 차량행렬에 밀려 팔당댐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떨칠 수 없어 아껴두었던 연꽃차를 꺼내 커다란 유리그릇에 꽃을 띄웠습니다. 탐스런 연꽃이 눈에 어리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아 오르고서야 물에 젖은 종이 같던 몸도 바람처럼 날 수 있었습니다.

동양화 작업에는 대체로 종이(紙), 붓(筆), 먹(墨), 벼루(硯) 등이 필요한데 이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 하며, 사우를 의인화하여 문방사후(文房四候)라고도 합니다. 이들 중 종이는 중국의 채륜(蔡倫)이 삼나무(大麻) 등을 원료로 만들었다 하나 그 전에 이미 종이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종이는 사용되는 원료와 제조법 등에 따라 성질이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지(韓紙), 중국은 한지(漢紙), 일본에서는 화지(和紙)로 불리어 집니다. 그 나라 기후나 재료 구입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제조되고 발전되었기에 그 특성을 서로 비교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아 교황 요한23세 박물관에 소장된 '지구본' 복원사업

에 사용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 습기가 많은 날은 화선지(畫宣紙)에 작업을 하면 붓이 흐르는 감각이나 먹이 스미는 정도가 종이의 눅눅함으로 인해 매끄럽지 않음을 느낍니다. 작업이나 보관에 적당한 온·습도가 대체로 사람이 살기 좋은 상춘(常春)기온인 20℃에 습도는 50~60%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을 갖추기 이전에는 사시사철 온도와 습도 변화에 적응해 작품의 생명을 오래 담아야 하는 종이를 선택하는 것은 작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종이에 윤기가 흐르고 찢어보아 섬유질이 많은 것이 천연한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한지로 작업을 해보면 먹의 흡수가 빠르고 번짐이 원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는 천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년을 간다(紙千年 絹五百)' 고 합니다.

실제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사리함에서 한지에 목판으로 인쇄된 '무구정광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현존 최고의 인쇄물로 습기 찬 석탑에서 1200년 이상 잘 보존되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한지공들은 천년 세월을 이기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래 방식으로 종이를 생산,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전통한지는 펄프로 생산되는 종이와 달리 씹으면 씹을수록 단단히 뭉쳐져 이가 부러질 수 있다 합니다.

새까만 먹물을 잘 흡수한 화선지에서 맑은 묵향이 코끝을 타고 오릅니다.

글, 그림 / 김외자 (문인화가)

제10기 청소년 기초명상과정을 마치는 나의 소감

-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오듯이 와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회 진행되면서 집중하는 시간도 조금 늘려가니 희열도 느끼고 점점 재미있었다. 아쉬운 건 내가 이 과정을 하면서 원래 같이 하려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인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추천하고 싶다.



- 약간 즐거운 느낌도 들고 성장된 느낌도 든다. 이 기초명상과정은 세상을 사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믿고 심화과정도 열심히 하여 커서 좋은 인재가 되고 싶다.

- 처음엔 짜증을 내며 한번가보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데려다주지 않으면 안 간다. 쩡쩡거리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웃는 얼굴로 오고 10분도 하기 힘들었던 명상은 30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남들보다 늦게 찍혔던 잔상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남들만큼 하게 됐다. 처음엔 잠만 자던 이완명상은 집중하라는 부위에 집중하면서 그 부위에서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의 변화가 올때마다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 잔상이 오래남는것도 신기했고 명상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신기했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나의 변화였다.

- 처음에는 이걸 왜 하나 싶었고 효과가 있는걸까 하는 의심을 했었고 배우면서도 의심을 많이 했다. 처음 집중력테스트를 하고 다시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비로소 효과가 눈으

로 보여야만 믿는 내 자신이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효과만큼 제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행복했고 시작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쪽으로 자주 생각했던 마음들이 점점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바뀐 내 자신이 놀라웠다. 15회기를 마치고 소감문을 쓰는 지금은 오히려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행복했다.



- 청소년 기초명상과정을 통해 명상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났고 이곳을 오는 먼 길을 혼자 다니며 나만의 시간도, 너무도 많은 것을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가는 것 같다. 늘 바쁜 삶속에서 공부와 외부활동, 친구들 간의 관계, 신경 쓸 것이 많았던 나의 세상 속에 명상은 단비 같았다. <광장>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에게는 광장과 밀실이 구분되는데 나는 광장 속에서만 바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다. 명상은 내게 밀실을 제공해주었으며 내면의 휴식을 제공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 내 삶은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확실히 내 자신이 변한 것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

로 높이 날기 위해 더 멋진 삶을 위해 나는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

- 처음에는 정말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미세하게라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끈기가 늘어서 정말 좋았다. 참을성도 생겼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교육이었다.



- 주말에 가장 활발할 때 2~5시를 이곳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보내면서 많은 갈등과 힘들도 있었지만 나름 시간을 헛되지 보낸 것 같지는 않다.. 나 자신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해 둔 것이 새삼 안심되고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내 안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스스로 하는 힘도 길러졌다.



- 8주간의 명상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기분이다. 처음에는 정말 오기 싫었지만 한 주 한 주 해갈수록 재미도 있었고 점점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기분이 들어 계속 오고 싶었다.

(이 글은 제10기 청소년 기초명상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소감문 중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명상에 제목을 붙인다면 공모전

참나를 찾는 14번의 나 비우기(대상)

벌써 마지막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구석이 안타깝고 딱딱하다. 한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내 인생의 재미있는 한 부분이 추억으로 남으려 한다. 명상을 통해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며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마주하며 아주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주춧돌

주춧돌은 집을 세울 때, 기둥 밑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까지 한 명상활동은 인생이라는 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초 단계인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

Turning point in m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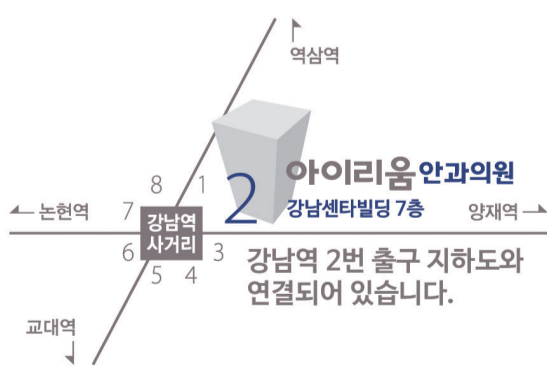
탄허기념박물관에 오게 된 순간부터 나의 생활은 달라졌고,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짜증나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왔지만 박물관 문 안으로 들어 온 순간, 그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졌다. 학교에서 매일 자던 나는 이제 선생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대충하며 항상 나를 속였던 행동들, 명상을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에베레스트 동반 중

첫 시작은 너무 힘이 들었으나 올라가다 보면 오기가 생겨 더 도전하고 싶다. 물론 중간에 힘든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다보면 어느새 정상 '베이스캠프'에 도착하게 된다. 심화반에 가기 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동기를 부여하며 언젠가 저 정상위에 올라 가 있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공모전에 응모한 글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글들을 모아 실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야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탄허사상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 19시 00분
청년불교대학 매주(토) 오후 14시 0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청년 10분 정중행자과정 5월2일~12월 5일(토)오후 2시

문화특강 안내

수요한문반 매주(수) 오후 2시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민요반 매주(금) 오후 1시

기도 안내

일년기도, 인등기도, 초하루기도, 초삼일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백중기도, 신년3일기도,
신년천도재, 입춘기도, 소원성취기도(수능백일 및
각종 축원, 21일 소원성취기도, 각종 백일기도)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9/25~10/2 백담사 기본선원 능엄경 강의
10/3 수서경찰서 청소년 교화 법문 회향
10/6 큰스님 불교 TV '돌앞의 잣나무' 녹화
10/26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참불 선원 오후 3시)

선원 일정(9.28~10.28)

9. 30(수) 지장재일
수요법회, 문광스님 특강
박물관 음악회
기초 참선
10. 2(금) 금요법회, 문광스님 특강
7(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26강)
아태 포럼 45차 5시~7시
맹자 진심장
기초 참선
9(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4강)
10(토) 청소년 명상 심화과정
11(일) 일요 법회 (탄허사상 특강 47강)
13(화) 초하루기도
14(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27강)
맹자 진심장
기초 참선

16(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5강)
17(토) 제 5회 금강경 강송대회
청소년 명상 심화과정
18(일) 일요 법회(탄허사상 특강 48강)
21(수) 백담사 순례법회
23(금) 금요법회 (대승기신론 16강)
24(토) 금강경 독송 집중 정진
25(일) 일요 법회(탄허사상 특강 49강)
28(수) 수요법회 (금강경 야보송 28강)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야마천궁계찬품.....7개
산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산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15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법도행, 경기 선우회, 금강경 독송반

보 시 물 | 정희성, 동명한의원(백진구), 최만덕행, 김단희

백중보시 | 한정명심, 조원명심, 천화당 한의원, 김용범, 김경표, 김종수, 최현숙, 최선희, 박병의, 이종현, 이종업, 지혜장, 33기 불교대, 강호숙, 윤희순, 이종균, 정재원, 김타관,
박영자, 안태진, 백길수, 문동문, 서예반, 박종민, 박혜천

대중공양 | 엄기형, 김춘택, 송진영, 자성행, 원주, 황영길, 보리성

금강경강송대회 보시금 | 양정아, 양정일, 본심행, 양경자, 신현희, 박주홍, 박주현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 업 경 설 판

구 본 무
이 교 원
이 재 법
전 상 진
서 상 윤
자 상 행
김 상 심
자 제 회
무 주 상 보 시
무 주 상 보 시

구 좌 등 참

1 - 8 0 8 이 규 남
1 - 9 2 7 김 태 환
1 - 9 2 6 맹 자 반
1 - 8 9 5 김 영 진
1 - 8 9 4 이 규 섭
1 - 8 9 3 최 경 화
1 - 8 9 2 윤 혜 속
1 - 8 9 1 손 광 락
1 - 8 7 0 원 음 회
1 - 8 5 8 김 한 석
1 - 8 5 7 권 수 민

1 - 8 5 6 권 정 민
1 - 8 5 5 권 순 대
1 - 8 5 4 경 낙 현
1 - 8 5 3 김 태 훈
1 - 8 5 1 조 성 민
1 - 8 5 0 조 성 윤
1 - 8 4 9 조 위 연
1 - 8 4 8 김 성 심
1 - 8 4 7 방 승 온
1 - 8 4 6 방 수 은
1 - 8 4 5 송 민 서
1 - 8 4 3 최 재 진

1 - 8 4 2 박 정 현
1 - 8 4 1 이 영 자
1 - 8 3 9 진 연 아
1 - 8 3 8 백 미 현
1 - 8 3 7 송 영 중
1 - 8 3 0 전 영 국
1 - 8 3 1 전 영 배
1 - 8 3 2 전 형 주
1 - 8 6 9 32기 불대
1 - 8 4 0 신명환 영가
1 - 8 4 4 이상금 영가
1 - 8 5 2 박희수 영가

永久위패 봉안 동참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일반영구위패

위패161 신청인 윤경분/ 봉안인 윤성분 영가

위패194 신청인 김옥이/ 봉안인 정진준 서모에 권성경영가

위패195 신청인 김옥이/ 봉안인 정해홍 이상구 영가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

2015년 10월 17일 (토)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대종사의 눈으로, 좋은 책 『금강경』 읽기 프로그램

국태민안을 발원하던 유구한 민족문화인 경전강송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 뜻을
널리 펼쳐 보살사상 실천과 만일수행결사운동의 보급에 이바지할
금강경 강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성인 일반부
학생부 : 초, 중, 고등, 대학생 (학생증 첨부)
- 응시부문** 개인전 : 외워 쓰기, 암송
단체전 : 합송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 응시 가능
수행수기
- 접수기간** 원서접수 : 201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접수)
- 지원서** 소정 양식(우편 접수 시 사진 3x4 부착)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금강선원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형료** 개인, 단체 : 3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단, 학생은 무료 (학생증 제출), 수행수기 부분만 무료.
-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 FAX: 02) 445-8034
•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 51
TEL: 02) 445-8486 / FAX: 02) 445-8481
2.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 대회상금** 성인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금상 300만원 | 은상 200만원 | 동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 우수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단체전 : 단체상 100만원(3팀)
*각 부문에 특별상 수여.

- 시험 유형 및 출제**
- 개인전** 필기 : 금강경 32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 (초, 중, 고등,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대학생의 경우 성인 일반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 교재 -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조계종 표준본
강송 : 암송, 운음, 소리 크기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결선은 1차 심사 후 질의응답으로 최종 순위 평가
- 단체전** 팀 인원 : 5명 이상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팀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 3분 이내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대회일정** 08:30 입실 완료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워쓰기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점심시간 (12:00~13:00)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15:20 이후~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당의례

※ 제세공과금(22%)는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이나 원거리 참가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선원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금강선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445-8484로 받습니다.

주최 오대산 월정사, BTN 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서울시, BBS불교방송